

농가속성수 보급사업을 위한

한국낙농육우협회-한국양봉협회 업무협약 체결

- 깨끗한 목장 가꾸기 운동 낙농가 동참확대 기대 -
- 다른 품목간의 상생·발전하는 축산업 모델의 제시 -



봉산업이 공동으로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양봉협회 전기현 회장은 전국 낙농가들을 대상으로 질 좋은 속성수를 보급함으로써 양봉농가에게는 다양하고도 광범위한 벌꿀생산 활동을 용이하게 하여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히고 또한 낙농가들의 깨끗한 목장 가꾸기 운동 참여 유도에 일조할 수 있어 기쁘다고 전했다.

아울러 양단체장 모두 최근 한미 FTA 타결과 함께 축산업을 둘러싼 대외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서로 다른 품목이 상생·발전하는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범축산발전을 향한 전환점이 모색되어 지길 바란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업무협약을 통해 한국낙농육우협회는 산하 도지회, 낙우회를 중심으로 양봉산업 속성수 보급 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도할 예정이며, 도지회, 낙우회 단위로 9월말까지 양봉협회에 모목을 신청하여 10월말경부터 낙농가에 보급할 전망이다.

한편 한국낙농육우협회는 지난해 목장환경 개선을 위한 농가실천 방안으로 식목일을 목장내 나무 심는 날로 지정한 바 있는데, 올해로 2년째 속성수 보급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양봉협회와 업무협약을 맺게 됨으로써 많은 낙농가들이 목장환경 개선에 나설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는 깨끗한 목장 가꾸기 운동 확산 및 양봉산업 발전을 위해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의거 실시되고 있는 양봉산업 속성수(밀원수) 보급사업 동참에 나서 주목되고 있다.

한국낙농육우협회와 양봉협회(회장 전기현)는 낙농산업 및 양봉산업 상생발전을 위해 5월 16일(수) 한국낙농육우협회 회의실에서 농가 속성수 보급사업 업무협약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협약식에서 한국낙농육우협회 이승호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낙농가들이 양봉산업 속성수 보급사업 참여로 목장환경 개선은 물론 양봉산업 발전에도 기여하길 바란다고, 앞으로도 양단체간 업무교류를 통해 낙농산업과 양